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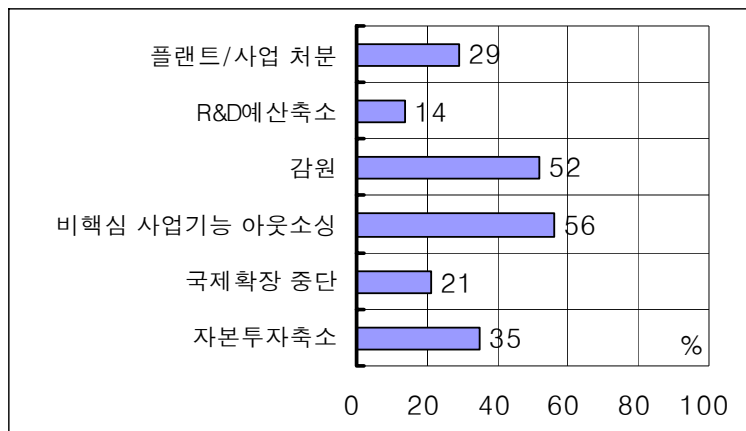
감원 · 아웃소싱으로 불황 극복한다!

CEO의 절반 이상 아웃소싱 · 감원 선택 ... 사업처분 · 투자축소도 일반적

세계 최고경영자(CEO)들이 경기불황을 이겨내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감원 및 비핵심 사업 기능 아웃소싱 등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.

PricewaterhouseCoopers(PwC) 조사에 따르면, 세계 1400명 CEO 중 56%는 아웃소싱을 이용했으며 52%는 인력 감축, 35%는 자본투자 축소, 29%는 플랜트 또는 사업 처분을 선택했다.

세계 CEO들의 불황 대처방안



자료) PricewaterhouseCoopers

유럽은 플랜트 또는 사업처분이 38%로 나타나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됐으며, 미국은 23%, 아시아-태평양 지역은 21%, 아프리카는 20%로 나타났다.

인력감축 또는 정리해고는 유럽이 60%로 가장 많았고 남미 57%, 미국 42%, 아시아-태평양 40% 순으로 조사됐다.

남미 지역은 아웃소싱 비중이 73%로 가장 높은 반면 미국은 34%에 불과했으며, 소비재 및 공업 분야에서는 플랜트 또는 사업처분이 31%, 투자축소가 39%로 나타났다.

<Chemical Journal 2004/03/22>